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내대책과 최호천 과장(044-203-4140), 한혜성 사무관(044-203-4144)

'한 · 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'

□ **한·미 FTA는 발효 2년간 對美수출 증대** 및 **투자 활성화** 계기를 제공하여, 우리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첨부] 한 · 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

※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담당 부서	담당 과장	담당자
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	최호천 과장(044-203-4140)	한혜성 사무관(044-203-4144)
FTA이행과	윤창현 과장(044-203-5760)	최원엽 사무관(044-203-5762)
투자유치과	고승진 과장(044-203-4080)	위승복 사무관(044-203-4082)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	서해동 과장(044-201-1711)	이강석 사무관(044-201-1721)
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	제영광 과장(042-481-3201)	백형민 사무관(042-481-3202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한혜성 사무관(☎ 044-203-41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첨 부

한 · 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

2014.3.14

관 계 부 처 합 동

차 례

Ⅰ. 한 · 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····· 1

Ⅱ. 한 · 미 FTA 발효 후 분야별 성과 ····· 2

1. 대미 교역규모 증가 ····· 2

2. 대미 농식품 수출 증대 ····· 4

3.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····· 5

Ⅲ. 향후계획 ····· 6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Ⅰ. 한 · 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

◇ **한·미 FTA는 발효 2년간 對美수출 증대** 및 **투자 활성화** 계기를 제공

○ **FTA 혜택품목의 수출, 수입이 동시에 증가**하고 **투자유치도 크게 확대**되어 **우리경제 활성화**에 기여

□ **미국**은 **전세계 GDP의 22.5%**(16.2조불, '13년 IMF자료 기준)를 차지하고 있는 **세계 최대시장**이자, 우리나라의 **3위 교역상대국**

○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수출상대국이자 3위 수입상대국

* 주요국과의 교역규모('13년, 억불): (중) 2,289 (EU) 1,051 (미) 1,035

□ FTA 발효 2년간 **對美수출이 對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**하고,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

○ **(교역)** 발효 2년차 **FTA혜택품목 수출**(15.7%) · **수입**(10.1%)이 對세계 수출입(각각 6.0, 5.3%)보다 **크게 증가**

○ **(투자)** 발효 **2년간** 對**美 투자유치**는 동기간 대비 약 **2배 확대**

< **한 · 미 FTA 발효 2년간 주요 지표**(자료: 산업부 · 관세청) >

		발효 전 2년 ('10.3.15~12.3.14)	발효 후 2년 ('12.3.15~'14.3.14)[1]	증감률(%)[2]
對세계수출(억불)		10,496	11,123	6.0
對세계수입(억불)		9,810	10,327	5.3
對美수출 (억불)	소 계	1,097	1,210	10.3
	혜택품목	210	243	15.7
	비혜택품목	370	377	1.9
對美수입 (억불)	소 계	877	844	△3.8
	혜택품목	207	228	10.1
	비혜택품목	256	195	△23.8
對美투자유치(FDI, 백만불)		4,406	8,040	82.5

주1) 동기간 비교를 위해, '14.2.28일까지 집계된 값을 1년으로 환산
주2) 혜택 · 비혜택품목은 각각 1년간인 발효 1년전('11.3.15~'12.3.14) · 발효 2년차('13.3.15~'14.3.14) 값과 그 증감률을 표시

Ⅱ. 한 · 미 FTA 발효 후 분야별 성과

1 대미 교역규모 증가

◇ **한·미 FTA 발효 후 교역규모**는 발효 전에 비해 **소폭 증가**

○ 특히, **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**(1년차 10.5%, 2년차 4.9%)은 **동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**(△2.0%, 2.6%)**보다 높은 수준**

○ 발효 후 **對美수입**은 **혜택품목은 증가**하고 **비혜택품목**은 **감소**

※ 통계기준: '12.3.15(발효일) 전후 비교

□ **[교역규모] 한·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對美 교역규모**는 **발효 전 동기간 교역규모에 비해 4.1% 증가**(1,974→2,054억불)

○ FTA 혜택품목의 발효 2년차 교역규모는 발효 전년에 비해 13.0% 증가(417→471억불)했지만, 비혜택품목은 동기 대비 8.6% 감소(626→572억불)

< **한·미 FTA 발효 전후 한미 교역현황**(자료: 관세청) >

(단위: 억불, 전동기비%)

	발효 2년전 ('10.3.15~'11.3.14)		발효 1년전 ('11.3.15~'12.3.14)		발효 1년차 ('12.3.15~'13.3.14)		발효 2년차* ('13.3.15~'14.3.14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對세계	4,895	4,455	5,601 (14.4)	5,355 (20.2)	5,491 (△2.0)	5,168 (△3.5)	5,632 (2.6)	5,159 (△0.2)
對미국	517	414	580 (12.2)	463 (11.8)	589 (1.6)	421 (△9.1)	621 (5.4)	423 (0.5)
FTA혜택품목			210	207	232 (10.5)	218 (5.3)	243 (4.9)	228 (4.5)
FTA비혜택품목			370	256	357 (△3.5)	203 (△20.7)	377 (5.7)	195 (△3.7)

* 동기간 비교를 위해, '14.2.28일까지 집계된 값을 1년으로 환산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□ **[수출]** FTA 발효 후 2년간 **對美수출은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**하여,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

○ **FTA 혜택품목**이 2년 연속 **수출 증가**(1년차 1.6%→2년차 5.4%)

- 자동차부품(11.5→8.3%)과 석유제품(36.1→5.9%*) 등의 증가세 지속

* 수출단가 하락 및 타국의 정유시설 증설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

○ **비혜택품목 수출**은 **1년차에 감소**(△3.5%)하였으나, **2년차에 증가**(5.7%)

-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(△34.1%)하였다가 LTE 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2년차에 급증(31.3%)

- 자동차 수출도 한국차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에 힘입어 두 기간 연속 증가(16.5→14.7%)

□ **[수입]** FTA 발효 후 2년간 **對美수입**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(10.1%)하여 비혜택품목 감소(△23.8%)를 일부 상쇄

○ **혜택품목은** 원동기 및 펌프(△4.4→9.7%), 농약 및 의약품(15.9→13.4%) 등을 중심으로 **수입 증가세 지속**(5.3→4.5%)

○ **비혜택품목**은 반도체(△1.3→△6.1%), 항공기 및 부품(△16.3→△12.9%)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**연속 감소**(△20.7→△3.7%)

□ **[활용률]** 2년차 한 · 미 FTA 수출활용률은 **75.7%**로, 1년차보다 **상승**

○ 대기업의 한 미 FTA 활용률이 중소 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, **중소·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**하고 있어 고무적

※ FTA 수출활용률 =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/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

< **우리나라 기업의 한·미 FTA 수출활용률**(자료: 관세청) >

	'12.3.15~'13.3.14(%)	'13.3.15~'14.3.14(%)*	증감폭(%p)
전 체	70.2	75.7	5.5
대기업	76.9	83.2	6.3
중소·중견기업	60.7	69.2	8.5

* 동기간 비교를 위해, '14.2.28일까지 집계된 값을 1년으로 환산
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, 중소중견기업은 그 외의 기업으로 분류

2 대미 농식품 수출 증대

◇ 발효 2년차 **對美 농식품수출**은 발효 전 대비 **증가**(21.4%), **수입**은 **감소**(△20.2%)

□ **[수출] FTA 발효 2년차**('13.3~'14.2), **對美 농식품 수출**은 **발효 전**('11.3~'12.2)보다 **21.4% 증가**, 발효 1년차보다 9.5% 증가

*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차와 2년차에 발효전 대비 각각 7.6%와 8.8%로 증가

○ **(부류별) 가공식품**(3.9억$, 2년차에 발효 전 대비 15.2%), **과일·채소**(0.7, 13.0), **축산물**(0.3, 113.2), **임산물**(0.3, 131.3) 등 모든 부류에서 증가

○ **(품목별)** 담배류(80.1%), 기타음료(46.2), 라면(27.6), 빵(80.2), 고추장(48.4) 등 **가공식품 수출***은 FTA발효 이후 **지속적**으로 **증가 추세**

* ('11.3~'12.2) 3.4억$ → ('12.3~'13.2) 3.6(6.5%↑) → ('13.3~'14.2) 3.9(8.1↑)

□ **[수입]** 발효 2년차 **미국산 농식품 수입**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**발효 전**('11.3~'12.2)보다 **20.2% 감소**(75.1억$→59.9)

* ('11.3~'12.2) 75.1억$ → ('12.3~'13.2) 65.3(△13.1%) → ('13.3~'14.2) 59.9(△8.2)

○ **축산물**은 국내산 공급확대(돼지고기, △41.4%), 소비패턴 변화(닭고기, △46.1) 등으로 **수입 감소**(△12.0%)

○ 다만, FTA 발효 1, 2년차에 **관세가 대폭 감축된** 오렌지, 체리, 포도 등 일부 **신선과일 수입액**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.7%, 92.4%, 93.0% 증가

* 국내 농가들은 출하시기 조절, 재배품종 다양화 등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< 한·미 FTA 발효 전후 對美 농식품 수입 동향(자료: 농식품부) **>**

(단위: 백만불, %)

구분	발효 전 (11.3~12.2) (A)	발효 후		증감율	
		1년차 (12.3~13.2) (B)	2년차 (13.3~14.2) (C)	발효 전 대비 (C/A)	전년 대비 (C/B)
전체 합계	7,507	6,527	5,989	**-20.2**	-8.2
농산물	5,149	4,276	3,654	-29.0	-14.5
- 곡물	3,231	2,192	1,462	**-54.7**	-33.3
- 과일 채소	454	596	614	**35.2**	3.1
- 가공·식품	1,463	1,488	1,577	7.8	6.0
축산물	1,709	1,428	1,504	**-12.0**	[illegible]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3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

◇ **한·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**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**거의 2배 확대**

○ 누적 투자액('13년말)도 국내 FDI총액의 24.5%로, 미국은 **우리의 최대투자국**

○ 미국의 對韓투자는 그린필드, 서비스 등 **다양한 분야에 유치**되어 **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**

□ **[투자] FTA 발효 이후 2년간**('12.3.15~'14.3.14), 외국인직접투자(신고기준)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**82.5% 증가**

* '13년 투자유치액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, 일본(△40.7%), 중국(△33.8%) 등 주요 투자국으로부터 급감할 때, 미국으로부터는 소폭(△3.8%)만 감소

* '13년말까지 누적 총투자액은 53,349백만불로 국내 총 FDI의 24.5%를 차지

○ (형태별) **M&A형**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**그린필드형*** 투자도 **모두 증가**

* Greenfield 투자: 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,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

○ (업종별) **제조업**(운송용기계, 금속분야 위주)·**서비스업**(금융·보험업 위주) **모두 증가**

< 한·미 FTA 발효 전후 對美 투자유치현황(자료: 산업부) **>**

(단위: 백만불, 전동기비%)

구 분		발효전 2년간 ('10.3.15~'12.3.14)	발효후 2년간 ('12.3.15~'14.3.14)*	증감율(%)
전체		4,406	8,040	82.5
투자형태별	M&A형	159	1,530	862.1
	그린필드형	4,248	6,510	53.2
주요업종별	제조업	1,544	2,984	93.3
	서비스업	2,854	4,536	58.9

* 동기간 비교를 위해, '14.2.28일까지 집계된 값을 1년으로 환산

Ⅲ. 향후 계획

◇ '14년 한·미 FTA를 포함한 對FTA발효국 교역·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**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**

□ **(기업의 FTA 활용)** 旣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**FTA 활용촉진종합대책**('13.6월)의 **내실화방안을 수립**('14.5월)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

①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**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를 강화**하여 **기업의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**

②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**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촉진방안 마련**

③ **기추진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세부사업별 내실화 추진**

- 직접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**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**·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, **기업의 FTA 활용전략 수립 지원**
- **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공급망 중심 지원을 확대**
- 고용연계 교육 및 **구인·구직 매칭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**
- **FTA 관련 정보 제공 강화** 및 **손톱밑 가시제거 노력** 지속

□ **(투자유치 활성화)** 對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, **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**

○ **對FTA 발효국에 대한 투자유치 IR** 뿐만 아니라 허브효과를 활용하고자하는 **주변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IR 추진**

□ **(보완대책 내실화)** 취약산업에 한·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**지속 모니터링**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

○ 보완대책 현장점검, **성과관리**, 관련 전문가·관계자의 **의견을 수렴**하여 취약산업 지원 체감도와 **경쟁력 제고**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